

광주보건환경연, 수질·토양 분석 국제인증 미국 환경자원학회 8년 연속 '만족'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은 미국 환경자원학회(ERA)가 주관한 환경오염물질 수질·토양분야 국제측량도 시험에 참가, 모든 항목에서 '만족'(Satisfactory) 판정을 받아 국제 인증서를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미국 환경자원학회는 ISO 17043 인증을 받은 국제 공인 숙련도 시험기관이다. 시료에 대한 측정기관의 분석능력을 만족·경고·불만족 등 3단계로 검증한다.

이번 평가에는 전세계 수질분야

1010개, 토양분야 342개 분석기관이 참여했다.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은 BOD 등 20종의 수질분야와 납 등 12종의 토양분야에서 8년 연속 모두 '만족'의 성적을 거뒀다.

지난 2월에는 국립환경과학원이 주관한 폐기물분야 숙련도 시험에서 카드뮴 등 7종에 대해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아 수질·토양·폐기물 분야에서 국내외가 인정하는 우수분석기관으로 입증됐다고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은 설명했다.

/김도기 기자

민선 8기 출범 1주년...점검 보고회 개최 문화전당권 활성화·인문축제 상설화 등 발전방안 모색



동구는 민선 8기 출범 1주년을 앞두고 공약사항 등 역점사업에 대한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주요 업무 추진사항 점검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각 부서별 간부급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8기 주요 업무 추진 상황과 개선방안 등 향후 구정 발전 방향을 토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구제적으로 ▲골목관광을 통한 문화전당권 활성화 ▲주민참여형 인문 축제 상설화 ▲소상공인 혁신포 육성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 시행 ▲보호 대상 아동 지원

강화 ▲재능아동 꿈키움 지원방안 ▲연령별 탄소중립 실천 교육 모델화 ▲도시재생 거점시설 활성화 ▲중장로권 깨끗한 거리 조성 ▲구도심권 주차 문제 해결방안 ▲창의적인 빈집 활용 대안 ▲마을사랑채 주민참여 활성화 ▲주민이 함께하는 예방적 안전관리 구축 등을 논의했다.

동구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향후 다각적 접근이 필요한 역점사업에 대한 부서 간 협업체계 강화, 공약 이행 과정에서 신뢰·만족도를 높여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김도기 기자

광산구 '식품진흥기금 용자지원' 추진 100㎡ 미만 영세업소·시책참여업소 등 우선 지원

광산구는 식품위생업소의 위생관리 및 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자금 지원을 위한 '식품진흥기금 용자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자는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등의 시설개선을 희망하거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지정을 위한 설비시설을 개선하려는 광산구 소재 식품위생업소 영업자다. 영업장 면적 100㎡ 미만 영세업소나 시책참여업소 등을 우선

지원한다. 사업 기간은 이달부터 12월까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용자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지정 은행(광주은행 또는 국민은행)에 방문 또는 유선으로 용자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광산구 누리집 공고 게시판을 참조하거나 광산구 식품위생팀(062-960-8706)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동기 기자

달라진 서구 친절서비스 '만족도 급상승' 동 행정복지센터 친절도 평가 67점→90점대로

서구의 민원창구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다. 주민들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의 친절도가 향상되면서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있다.

서구는 18개 동 행정복지센터와 서구청 민원실 및 365민원실 전반에 대한 친절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시범적으로 거점동 4곳과 구청 민원실에 대한 친절 컨설팅을 실시했으며, 올해 컨설팅 대상은 20개소로 확대했다.

그 결과 6개월만에 친절도가 크게 향상됐다. 지난해 시범대상 5개소의 친절도 점수가 평균 67.5점에 그쳤던 반면, 올해 상반기 친절 컨설팅을 실시한 20개소의 친절도 점수가 평균 83.26점으로 크게 올랐다. 특히 치평동, 상무2동, 서창동 등 7개 동은 친절도 점수가 최상위권인 90점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구는 전문 모니터 요원이 정기

적으로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환경 및 근무자세, 맞이인사, 경청·응대태도 및 상담능력, 배운인사 등 친절도의 기준 항목 전반이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컨설팅 전문가에 따르면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친절도 점수(평균 70점대)를 훌쩍 뛰어넘었으며, 친절서비스의 대명사인 은행 수준도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도 이같은 변화를 피부로 느끼고 있다. 구청장과 직접 소통하는 '바로 문자하랑께(010-3080-8249)'에는 "동 직원들의 친절이 동사무소 업무가 즐거웠다", "전자제품 AS를 요청하려 방문했던 서비스센터보다 친절했던 공무원 응대를 받았던 하루다", "법무사에 제공할 상속서류가 많고 복잡하니 너무나도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감사인사만 열 번쯤 하고 왔다" 등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칭찬하는 주민들의 문자메시지가 잇따르고 있다.

/조선주 기자

하위권 대학 11곳 내년 재정지원 끊긴다

교육부, 2024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명단 발표 2025년, 경영위기대 제도로 변경...내년 7월 선정

교육부가 경주대, 웅지세무대 등 하위권 대학 11곳에 대해 재정 지원을 중단한다. 이 대학에 입학하면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지원을 제한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정부는 부실대학 구조조정의 일환인 이 제도를 도입한 지 12년 만에 폐지하고, 내년부터는 기업식 재무진단을 거쳐 재정지원 중단 대학을 선정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 대학' 11곳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50%, 국가장학금 II 유형(대학자구노력형)

신·편입생 지원을 제한하는 '유형 I'은 ▲경주대 ▲대구예술대 ▲서울기독대(이상 일반대) ▲웅지세무대 ▲장안대(이상 전문대) 5개교다.

신·편입생이 모든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유형 II'는 ▲제주국대 ▲한국국대 ▲화성의과학대(옛 신경대, 이상 일반대) ▲고려대 ▲광양보건대 ▲영남의국어대(이상 전문대) 6개교다.

이는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교육비 환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졸업생 취업률, 법인 책무성, 부정비리 유무 등 대학 책무성 각 지표의 일정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다수 충족하지 못한 대학을 선정할 것이다.

다만, 이번 평가에서는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기준을 완화해 하위 7% 대학까지만 평가 지표를 채우지 못한 것으로 간주했다. 하위 7% 신입생 충원율 기준치는 일반대 68.67%, 전문대 63.20%로 극히 저조했다.

박준성 교육부 대학규제혁신총괄과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평가 지정 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 학령인구 감소나 코로나19 상황 여파를 감안해 조정 기준을 바꿀 수 있다고 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극동대 ▲서울한영대 ▲한국침례신학대(이상 일반대) ▲동의과학대 ▲수원과학대 ▲신안산대 ▲전주기전대 ▲창원문성대 ▲강원관광대 ▲김포대(이상 전문대) 총 10곳이 명단에서 해제됐다.

이들 10곳은 내년부터 신규 정부 재정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신·편입생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져 운영상의 승리가 트일 전망이다.

다만, 2021년 기본역량진단에 참여 않은 곳은 대학혁신지원사업(일반재정지원) 등 지원을 받지 못한다.

새로 재정지원제한 명단에 포함된 대학은 없다. 경주대, 서울기독대, 웅지세무대, 장안대 4곳은 지난해 유형 II에서 유형 I로 제한 수위가 완화됐다.

재정지원제한대학 11곳은 중앙 정부가 주도하는 신규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사업은 광역시도 등 사업 주체의 판단에 따라 이들 대학을 참여시킬 수 있다.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제도가 도입된 것은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12학년도부터로, 2025학년도부터는 사학진흥재단의 경영위기대학 제도로 전환한다.

/뉴시스

구제역 청정 사수...전남, 위기경보 심각→관심 하향 조정

미발생·감염형태 미검출 등 종합 검토해 하향

23년째 구제역 청정지역을 사수해 온 전남도가 19일 구제역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지난달 18일 충북지역에서 마지막 발생 이후 도내 정밀검사서 구제역 항원·감염형태(NSP)가 검출되거나 구제역 증상을 보이는 농장이 없어서다.

또 긴급 백신접종에 의한 면역형성 기간 등을 종합 검토해 구제역 추가

발생과 확산 위험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지난 4월 상반기 구제역 일제접종을 통해 소·염소 71만 마리에 대한 접종을 완료했다.

하지만 충북지역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도 예비비 27억 원을 투입해 도내에서 사육 중인 소·돼지·염소 142만 마리 등 모든 우제류에 대해 구제역 백신을 추가로 확대 접종했다.

전남도는 그동안 철저한 백신접종을 통한 구제역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2019년부터 전남도 내 소·돼지·염소·사슴 사육농가에 구제역 백신 구입비를 100% 보조 지원하고 있다.

도내 구제역 방역대상은 소·돼지·염소·사슴 등 2만 가구 209만 마리로 전국 4위(13%) 수준이다.

구제역은 전국적으로 지난 2000년부터 지금까지 총 13개 시·도에서 발생했지만 전남지역은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은 '청정지역'이다.

전남도교육청 책바다 서비스 택배비 지원

전남도교육청이 지역 대표도서관인 전남도립도서관과 협력해 도서관 자료 공동이용을 위한 '책바다 서비스' 택배비를 전남도교육청 소속 도서관(22관)을 포함해 7월 1일부터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고 19일(월) 밝혔다.

'책바다 서비스'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국가소초대차서비스'로, 소속 지역도서관에 원하는 자료가 없는 경우 전국 소재 도서관에 신청해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는 도서관 자료 접근성을 향상시켜 지역민에게 책 읽는 습관을 형성하도록 돕고, 독서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책바다 서비스' 회원으로 가입해 1인당 3책, 14일간 이용할 수 있으며 왕복 택배비 5540원 중 3000원을 지원한다. 2540원은 자부담이다.

'광주민주주의역사누리터 설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열어

설립 기본 구상·예정지 적정성·효과성 검토 등



광주시교육청이 19일 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가칭)광주민주주의역사누리터 설립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19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민주주의역사누리터(이하 역사누리터)'는 이정선 교육감의 공약사업으로 학생들의 민주주의 실천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 현장의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다.

광주학생독립운동, 5·18민주화운동 등 우리 지역의 민주주의 역사를

한곳에 모아 학생들이 광주의 민주주의 역사를 체험하며 배울 수 있는 공간이다.

시교육청은 연구용역을 통해 설치 타당성을 검토하고 역사누리터 설립·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용역은 조선대 산학협력단이 맡으며, 내년 2월3일까지 진행된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최영순 정책국장, 외부자문단, 관계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조선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용역 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역사누리터 설립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주요 연구내용은 ▲역사누리터 설립 기본 구상 ▲설립 예정지 적정성, 효과성 검토 ▲전시 계획 이용 활성화 방안 등이다.

시교육청은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2025년 12월 개관을 목표로 본격적인 역사누리터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조선주 기자

연구용역을 통해 설치 타당성을 검토하고 역사누리터 설립·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용역은 조선대 산학협력단이 맡으며, 내년 2월3일까지 진행된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최영순 정책국장, 외부자문단, 관계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조선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용역 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역사누리터 설립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주요 연구내용은 ▲역사누리터 설립 기본 구상 ▲설립 예정지 적정성, 효과성 검토 ▲전시 계획 이용 활성화 방안 등이다.

시교육청은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2025년 12월 개관을 목표로 본격적인 역사누리터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조선주 기자

북구 '라이브커머스 지원' 참여 청년 소상공인 모집

1차 26일까지 15개 업체·2차 8월 1일부터 20개 업체 모집

북구는 자본과 홍보 자원이 부족한 청년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판로 지원에 나선다.

북구는 '2030세대 청년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 지원사업' 참여 업체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라이브커머스'는 소비자와 실시간 소통하면서 상품을 소개·판매하는 온라인 채널을 가리킨다. 상품 홍보, 매출 증대 등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소상공인 입장에서 기술적 어려움과 비용 부담이 컸다.

이에 북구는 민생경제 회복기금 7600만 원을 들여 올해 처음으로 디지털 커머스 전문기관 '소담스퀘어'를 통해 청년 소상공인들을 지원한다.

제품 홍보 컨설팅, 쇼호스트 섭외, 발송 제작·송출 등 라이브커머스 전반에 걸쳐 돕는다. 또 성과 우수 업체는 한 달간 마을버스 외부 광고판 홍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참여 대상은 북구에 사업장을 둔 만 20세부터 39세까지 청년 소상공인이다. 온라인 상품 판매가 가능한 업체여야 한다.

북구는 우선 오는 26일까지 15개 업체를 모집한다. 또 8월 1일부터 21일까지 20개 업체를 2차 모집한다. 자격 요건, 상품 경쟁력 등을 두루 평가해 선정업체에 개별 통보한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 소상공인은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북구청 소상공인 종합안내센터 또는 소상공인지원과에 방문 신청해도 된다.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형안 기자

연구용역을 통해 설치 타당성을 검토하고 역사누리터 설립·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용역은 조선대 산학협력단이 맡으며, 내년 2월3일까지 진행된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최영순 정책국장, 외부자문단, 관계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조선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용역 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역사누리터 설립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주요 연구내용은 ▲역사누리터 설립 기본 구상 ▲설립 예정지 적정성, 효과성 검토 ▲전시 계획 이용 활성화 방안 등이다.

시교육청은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2025년 12월 개관을 목표로 본격적인 역사누리터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조선주 기자

'김치 세계화 위한 선도기술' 오는 22일 국제 학술심포지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세계김치연구소가 오는 22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김치의 세계화를 위한 선도기술'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연다.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사)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이하 미생학회)가 21일부터 사흘간 주최하는 2023 국제 학술대회 프로그램의 하나다.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에는 미생물학과 생명공학 분야의 국내 최고 학회이자 국제 저명학회로,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국내외의 관련 분야 교수와 전문가들이 최신 학술정보와 연구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심포지엄은 각 분야 전문가들의 주제발표로 이뤄진다.

우선, 프레드 브룩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 교수가 '점입 채소의 발효 중 대사산물 생성에 의한 pH에 측 모델링'을 주제 발표한다.

이어 이창수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박사의 '홀로토포그래픽 이미징, 세포의 3차원 시각화', 서수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박사의 '노로바이러스 감염과 회복에 따른 장내 미생물 변화', 이종희 세계김치연구소 박사의 '김치발효 이면에 숨겨진 유용 대사물질 생성의 분자생물학적 기전' 발표가 이어진다.

한편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우수인재 모집을 위해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연구주제 발표 경진대회도 열린다.

홍보부스를 마련해 김치 종균 전시와 김치 유산균 분양 상담, 채용설명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